

Open Doors

2019. 05. Vol. 205

박해와 선교현장

인도 *India*



오픈도어 5월 캠페인

박해의 숨은 희생자 :

어린이와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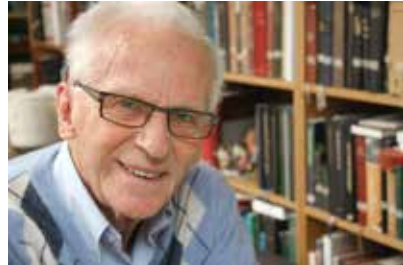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주의 기도(5)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

나는 중동에서 사는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때때로 나는 대단히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한다! 나의 방문 중에 팔레스타인 국적의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매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앤드류, 기독교는 나에게 매일의 헌신을 뜻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원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나와 내 형제자매들을 죽이며 고향에서 우리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해야만 하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놓고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 원수들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매일 저지르는 일을 봅니다. 시체와 고통과 피를 봅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기도에서 용서의 부분을 떼쳐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처럼 고백도 하고 생각도 한다. 하지만 사소한 원한을 품고 다니며 수 년 전에 당한 모욕과 공격을 집요하게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품고 다닌다고 해서 별로 해가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씩씩하며 기도하지도 않는다.

때론 “그들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기꺼이 용서해 줄 마음은 있어”라고 말한다. 1800년대 초에 살았던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는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원수가 교수형을 당한 후에 비로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물론 웃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용서해야 할 것이 있으나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변화되는 쪽보다는 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들을 벌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언급한 팔레스타인의 한 자매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과 분노를 잊어버리려고 아주 진지하게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용서하지 못하는’ 진흙탕 속에 빠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CONTENTS



04



06



10



16

- 04** 북한 선교 현장
나의 출애굽기 XI
- 06** 박해와 선교 현장
인도(India)
- 10**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스토리
와시훈(Wasihun), 마노이(Manoj), 사리카(Sarika)
- 14** 2019년 박해 지도
- 16**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사역
시리아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그 이상의 것을 심는 학교
-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 22**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 23**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청소년 돕기 캠페인

OpenDoors 2019년 05월호 | 통권 205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 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 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나오미,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opendoors.or.kr
 편집 _이종만 목사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I

드보라

공안에게 붙잡히는 순간에 다시는 푸른 하늘을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곧이어 두고 온 딸이 생각났다. 이제 막 똥을 넘긴 우리 딸...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딸아이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나는 막무가내로 잡아가는 공안에게 사정하기 시작했다.

“나 잠깐 할말 있소. 우리 딸이 지금 막 똥이 지난 난 아이라 아직 젖도 떼지 못했소. 나 좀 보내주시오” 그렇지만 공안은 매정하게 무조건 조사부터 받으라고 말했다. 조사를 받으러 공안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거리에 ‘이제 죽었구나’하는 생각뿐이었다. 형편이 어려워 돈 벌러 나온 거라고 계속 울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런 울부짖음은 통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나를 구류장에 집어넣었다.

구류장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중국 여성들이 나와는 다른 죄목으로 갇혀있었다. 구류장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 조선 처자가 여기 왜 왔는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하염없이 울었다. 내가 하도 울기만 한니까 구류장에 계신 분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위로하면서 다시 넘어올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5원, 10원씩 돈을 모아서 줬다. 그때 당시 나는 한국에 넘어갈 생각으로 집에서 추수하고 번 돈 1,500원을 숨겨온 상태였기에 구류장의 언니들이 주는 돈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많은 격려가 되었다.

나는 1주일 만에 복송을 당했다. 다리 건너 북한 땅으로 오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에게 쌍욕을 하면서 혹시 중국에서 숨겨온 돈이 있으면 지금 바치면 40%는 국가에 바치고 60%는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며 돈 숨긴 것을 내놓으라고 했다.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개중에 몇 명이 돈을 바치기도 했지만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어서 신체 검사를 빙자한 고문이 시작되었다. 보위부원의 지시를 따라 모든 사람이 옷을 벗어야 했다. 옷을 다 벗자 이번에는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고문을 시켰다. 소위 펌프 고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나는 집에서 가져온 돈을 자궁 안에 감춰 놓았었다. 혹시나 그 돈이 빠질까 조마조마해가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기 시작했다. 보위원은 300번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 조심한다고 했지만 보위원의 똑바로 하라는 호통 소리에다가 붙잡힌 이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약한 상태였던 지라 곧 머리 속이 새하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돈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지만 한 50번쯤 했을까... 아니나다를까 자궁 안에 숨긴 돈이 푹 떨어지고 말았다. 급한 마음에 아직 간부가 못 봤을 때 다시 숨기려고 손으로 돈을 집으려고 했지만 간부의 발길질이 먼저 날아왔다.

“이 간나 XX, 이 더러운 돈 좀 보라우, 어딜 숨기고 돈을 숨기고 있는 거야!”

결국 나는 돈을 다 뺏기고 심하게 두드려 맞았다. 때리는 매도 아팠지만 그보다 먼저 “내 생명줄이 끊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보위부 감옥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 땀내, 화장실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잘 때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어서 다리 위에 다리가 겹쳐서 누웠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밥을 주는데 밥이라고 하기도 민망

한 물건이었다. 누런 옥수수 국수를 물을 한 가득 해서 끓인 것인데 국물 색깔만 누런 빛이 있었다. 게다가 국에서 썩은 냄새가 났다. 그것을 작은 공기예다가 3-4숟가락 퍼주면 쪽 마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 냄새가 매스꺼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내가 코를 막고 불편한 속을 붙잡고 있으니 옆에서 안 먹을 거면 자기 달라고 했다. 그 친구는 내 밥그릇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그 국물을 입안에 털어 넣었다.

이렇게 밥을 한끼 안 먹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배가 고팠다. 별이 머리 주위를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조사를 받고 자백서를 써야 되는데 글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무리 냄새가 고약하고 먹을만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식사시간이 되었고 이번에는 눈 딱 감고, 코 막고 그 옥수수 국물을 쭉 들이켰다.

식사를 하고 2-3시간 정도 흘렀을까... 뱃속이 엉망이 되었다. 계속 화장실에서 설사를 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을 붙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도 먹어야 되니 식사시간에 나오는 국물을 계속 먹었다. 그렇게 먹고 설사를 하기를 3일을 정도 지나니 항문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날도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어지러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겨우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이년이 아직 안 죽었다...’ 하고 수군거렸다. 알고 보니 화장실에서 쓰러진 나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끌고 왔지만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간수는 내가 깨어난 것을 보더니 “이 간나 뒤지지 않고 살았네 명도 길다.” 하고는 별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쳤다.

간신히 깨어난 나는 내 처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너무나 억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체포와 복송, 조사와 고문을 겪으며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 섭섭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아무런 약도 쓰

지 않고 방치했을 뿐 아니라 깨어난 사람에게 명이 길다며 조롱하며 지나가는 간부의 모습에서 조국이 나를 심하게 천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졌다. 비록 탈북은 했지만 내가 조국이 싫어서 강을 건넜던 것은 아니었다. 비록 중국 시골 캄촌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북한의 실정을 지적하고 김정일을 욕할 때 앞장서서 김정일 장군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지 아느냐며 변호했고, 어머니 조국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악을 쓰며 변호했던 조국은 내가 죽어갈 때 돌보는 시늉도 하지 않았고 약 한 주먹 주지 않았다. 원래 배신감이 더 억울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서러움과 억울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살아서 이 나라를 고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뱃속까지 사무쳤다. 두려움에 떨다가 갑자기 분노와 고발의 의지가 생기자 이상하게 담대해졌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탈출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당시 중국에서 공안들의 추적에 걸려 집에서 잡혀온 탈북 여자는 보통 노동단련대 형을 받았지만 한국행을 하다가 걸리면 예외 없이 교화소 행이었다. 기간도 최소 4년 이상이었다. 열악한 감옥의 위생과 식사, 심한 강제 노동, 악화된 건강상태 등을 생각할 때 4년 징역은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한국행을 하다가 붙잡힌 나는 당연히 교화소행일 것이고, 이 몸 상태로 교화소에 가면 죽음이 가깝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했다. 살려면 도망쳐야 했다.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 그 죽음의 장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계속>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인도



India



인구: 1,354,000,000명

기독교 인구: 65,000,000명(4.8%)

박해정도: 극심함(10위)

수도: 뉴델리(New Delhi)

주 박해 요인: 종교 민족주의(힌두교)

보고기간: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0월 31일

인도는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83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국 중 10위를 기록하였다.

1. 인도의 박해 순위

인도는 2019년 기독교 박해 순위 조사에서 83점을 받으며 조사 대상국 중 10위를 기록하였다. 급진적인 힌두교도들의 기독교 박해의 영향으로 점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 것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급진 힌두교도들의 기독교 박해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5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여파로 종교적 민족주의가 심화되어 인도 내 기독교인과 무슬림에 대한 박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019년 박해 지수의 소폭 상승이 실은 총선을 앞둔 폭풍전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다.

2. 주요 박해 요인

종교 민족주의: 힌두교 단체들의 공격성이 지난 몇 년

간 심화되었다. 이들은 인도가 힌두교 국가이며 여타 종교는 인도에서 떠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도 내 기독교 박해의 주 세력은 급진적 힌두교도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매우 강경하게 표명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급진적이고 종교적 색채를 띠는 민족주의 운동이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라다크(Ladakh) 지방의 급진적 불교 운동, 마하라슈트라 주(Maharashtra) 우타르 프라데시 주(Uttar Pradesh)의 신불교 운동, 그리고 펀자브(Punjab) 지역의 급진적 시크교도들의 활동이 있다.

3. 누가 박해를 주도하는가?

무관용적인 힌두 세력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힌두교 관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사태를 눈감아주면서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관료

들은 지역 내 힌두교 조직과 폭력 조직들이 행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고, 때때로는 공격을 부추기거나 선동하기도 한다. 공무원과 관료들이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급진적인 힌두교 정당인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소속인 경우가 많아서 급진적인 힌두교 단체 및 조직들은 폭력을 행사하고도 실질적으로는 법의 적용과 처벌을 받지 않는다.

4. 결과

기독교를 이방 종교로 여기는 급진적 힌두교가 득세함에 따라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도 내에서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급진적 힌두교도들은 인도를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이슬람과 기독교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힌두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자의 경우 박해의 표적이 되며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위협 가운데 살아간다. 이들은 다시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받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시 집으로’라는 의미의 가르 왁시(Ghar Wapsi) 캠페인이 있다.

인도	WWL 2019	WWL 2018
보고 기간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2016년 11월 - 2017년 10월
피살	10	8
폭력	12,512	23,812
체포	207	635
공격 받은 교회	98	34
공격 받은 기독교인 자산	26	24

5. 구체적인 박해 사례

- 2018년 6월 19일에 20세에서 35세 사이의 기독교인 여성 5명이 자르칸드 주(Jharkhand)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던 중, 한 폭력 조직의 공격을 받고 숲에서 집단 강간을 당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핸드폰 동영상으로도 남겨졌다고 발표하였다.
- 2018년 1월 20일에 기드온 페리야스와미(Gideon Periyaswamy)

Periyaswamy)

목사의 시체가

칸치푸람 (Kanchipuram)

시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 지붕에 걸려

있는 것이 발견되

었다. 이는 기드온 목사가

경찰에게 급진적 힌두교도

들의 방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지 일주일 만에 일

어난 사건이다.

• 2017년 1월 14일 사트나(Satna)

시에 있는 성 에브렘 신학대학교(St Ephrem's Theological College in Satna)

소속의 캐롤 합창단이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

다. 2명의 신부와 30명의 신학대학생으로 구성된 이

캐롤 합창단은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도시 내 기독교

관련 기관들을 순회하며 캐롤을 부르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극우 힌두교 활동가들은 종교적 개종

행위라는 이유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

수한 경찰은 합창단을 구금하였다.

6. 현 상황

- 교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의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리더십과 제자훈련이 요구된다. 급진적인 힌두교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을 통해서도 교회 간 연합과 협력, 공격에 대한 지혜롭고 긍정적인 반응과 대처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 힌두교도들은 기독교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의 수적인 성장과 부족민 거주지역에서의 강한 존재감 때문이다. 인도인민당(BJP)이 정권을 잡고 정당 소속 총리 후보자인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총리에 당선된 2014년 5월을 기점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사태가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가 폭력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급진적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는 법적인 제재 없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며, 공격을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만연하다.
-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인도에서는 ‘차별’이라는 개념이 오랜 기간 사회에 만연하였다. 인도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카스트 제도의 낮은 계급, 즉 불가



축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기독 NGO들도 정부의 집요한 심문의 표적이 된다. 세금 납부 및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부 기관들이 이들 단체의 작은 오류라도 찾아내어 반국가 행위로 고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사건과 인터뷰 1

상실의 아픔을 이겨낸 니레쉬(Neelesh) 목사 사례

인도에서 사역하는 니레쉬(Neelesh) 목사는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유일한 일곱 살짜리 아들과 사역 그리고 집을 잃었다. 불교 신자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와 가족들은 공동체 전체의 위협 속에서 여전히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자신을 부르신 사명 때문에 그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니레쉬 목사는 치유를 기적적으로 체험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목사와 전도자가 되었다. 며칠 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가 회복되자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네 명의 딸들과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10년 전 어느 날 일곱 살짜리 아들이 크리스천을 미워하는 학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는 소식을 학교로부터 받았다. 급하게 학교로 뛰어갔고 병원으로 아이를 옮기던 중에 아이는 니레쉬 목사의 팔에 안겨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곱 살 난 아들이 친구들에게 맞아 죽었는데 어떤 말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니레쉬 목사는 슬픔과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술에 의지해서 지냈다. 이런 슬픔이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애통하던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딸 카미니(Kamini)가 기숙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한동

• 힌두교 중심의 지역 정치 조직들과 청년 조직들이 다수의 공개 미팅과 캠프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공격적인 민족주의 사상을 가르치며, 타 종교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학교에서도 교육 과정 속에 힌두교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인도 전역의 부족들의 힌두화를 위한 힘쓰고 있다.

안 동생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단지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며칠 참석한다고 핑계를 댔다. 카미니는 7개월 후야 친척을 통해서 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되었다. 때로 카미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따졌다. 하지만 니레쉬 목사는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떠날 수 없다고 답해주었다.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에는 어느 연세가 있으신 동료 목사의 도움이 있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길을 가는데 연장자 목사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네, 계속 술에 취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영원토록 천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걸세!”

이 한마디는 니레쉬의 영혼을 일깨웠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그날 밤 자신의 아들이 천국의 뜰에서 뛰어 노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아들을 결코 잃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해졌다.

니레쉬 목사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굳게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다.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얻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건과 인터뷰 2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난 컬딕(Kuldeep) 목사 인터뷰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는 30여년 전에 매우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의 기도 이전에 치료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유력한 힌두 가정이었었고 아버지는 마을의 리더였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례를 지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다. 많은 사원을 방문하고 제물을 바쳤지만 제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분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분이 불쾌하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집안에 우상부터 치우고 요구했습니다.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우상을 치우고 나자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고 아픈 증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저는 성경을 배우며 목사와 전도자로 30년 이상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치유 사건을 빙자해서 목사님을 죽이려 했나요? 사건 당시를 설명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와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저의 사역에 적대적입니다. 개종했다고 하면 자기들의 신의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베란다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기도와 찬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손을 들어 방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도끼를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이내 피로 물들고 뼈는 부러졌습니다.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행히도 제 비명 소리에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병원에 입원했고 오픈도어 사역자가 방문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다른 성도들의 형편도 좋지 않아서 제 가족을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픈도어가 식료품을 공급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 있나요?

가족들은 어떤가요?

제 아내는 매우 놀랐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는 이렇게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후원: 우리은행 1005-901-884970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어린이, 청소년 캠페인 스토리

스토리 1

와시훈(Wasihun)

모투마(Motuma)와 그의 가족은 서부 에티오피아의 오리미아(Orimia) 주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아왔다.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모독과 위협에도 만물숭배의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일단의 폭도들이 모투마 집으로 들이닥쳐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그를 살해했다. 그날 밤에 그의 가족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어 있었다. 한밤 중에 폭도들은 문을 산산조각으로 부수고 침입했고, 3명은 집안으로 몇몇 사람들은 집밖에서 대기했다. 폭도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찢어라!”라고 소리쳤다. 폭도들은 모투마를 집밖으로 끌고 나와 그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구타하고 사라졌다.

모투마가 숨진 직후 오픈도어 사역팀이 아내 부즈(Buze)와 아이들을 방문했다. 가족들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들 와시훈(Wasihun)의 슬픔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는 아빠가 구운 옥수수를 주겠다고 약속했노라고 소리치며 울었다.

2017년 3월 오픈도어 사역자가 다시 이 가정을 방문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있었고 희망

이 넘쳐나고 있었다. 인제라 빵과 치즈로 점심을 먹고 그날 밤의 상황을 듣게 되었다. 와시훈은 그날 사건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저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귀가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요.” 와시훈에게 모투마는 아버지 이전에 그의 영웅이었다. “제 아빠는 저에게 옷도 사주시고, 교회도 데리고 가시고 아빠가 하시는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아빠는 저의 보호자였어요. 아빠는 제가 마을 아이들과 싸웠을 때 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시련을 이기게 되었는지 말해준다.

“아빠가 제 앞에서 칼에 찔려 돌아가실 때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와시훈의 누나 바추(Bachu)는 동생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녀가 나중에 털어놓은 것이지만, 자신의 동생이 매우 아버지와 닮아서 자신의



감정이나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신이 때때로 우울하고 슬프다고 가족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바추는 시간이 흘러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정숙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박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투마의 아내 부즈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대해서 매우 염려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임신 3개월 쯤이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슬픔과 비통의 날들을 지나면서 임신은 저로 하여금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하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보호해주셨고 어떤 문제도 없이 딸아

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아이 체라 세나(Chera Sena)는 세 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가정을 따스함과 웃음으로 밝히는 태양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체라는 누구와도 놀기를 좋아하고 자갈을 던지며 관심을 자기에게로 끌며 오빠들과 춤추고 노입니다.”

모투마가 희생된 이후로 오픈도어는 와시훈의 가족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료품과 아이들의 학비 그리고 이제 가장이 된 아내 부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 치유 훈련 과정을 통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았고 오픈도어 사역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

더불어 와시훈 가족의 사건을 접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편지와 카드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가 답지했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커다란 자랑이 되었고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해주었던 모든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는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희망은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도움으로 저는 한 마리의 젖소를 구입했고 아이들에게 우유와 치즈 그리고 요거트를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산되는 것들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추도 갈아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홉 명의 아이들과 저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저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모든 이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

YouTube 검색: 와시훈





스토리 2

마노이(Manoj)

동인도 출신인 마노이는 올해 열 살이다. 그는 남자 형제 2명, 여자형제 1명과 살고 있으며 6학년에 재학 중이다.

마노이는 친구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교회에 간 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일학교에서 들은 성경 말씀, 특히 다윗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주일학교에 계속 참석했다.

전에는 식구 중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마노이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지난 1월 이후, 식구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마노이가 크리스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노이 부모님께 만약 그를 막지 않으면 그가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마노이가 살고 있는 마을은 대부분이 힌두교인들이어서 기독교를 혐오 종교로 간주한다.

식구들이 마노이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설득하자, 그는 비밀리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의 엄마가 교회 가는 그를 알게 되어 질책하고 때렸으며,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발생했다. 현재 마노이는 상황을 살펴가며 가끔씩만 교회에 나가고 있다.

올해 오픈도어가 주최한 어린이 성경학교에 참석한 마노이는 세미나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저는 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학교에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 3

사리카(Sarika)

올해 열다섯 살인 사리카는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인도에 살고 있다. 현재 11학년에 재학 중이며, 부모님과 남자형제 1명과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도어 사역자에게 이렇게 전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은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반대했어요. 그들은 아빠를 설득시켜서 아빠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는 저와 엄마, 남동생만 믿고 있어요.”

사리카의 아빠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식구들을 핍박하고 있다.

“저와 남동생들은 교회 가는 것을 허락 받지 못하고 있지만 몰래 가고 있어요. 엄마와 저는 예수님의 신성한 존재와 저희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야단치고 핍박한다고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리카는 학교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 그녀는 오픈도어 사역자에게 간증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더 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리카는 최근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와 교회신자들은 같이 기뻐하며 이 날을 계획했으나, 이 사실을 안 아빠가 목사님 집에 와서 엄마를 폭행했다. 이 사건 이후, 아빠는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으며, 식구들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사리카의 아빠는 집 주위에 우상을 세우고 식구들이 우상들에게 절하도록 시켰다.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리카와 엄마는 거부하고 대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다.

“왜 아빠가 저희 식구들에게 핍박하도록 허락하시는지 때때로 정말 저는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지만 목사님이 항상 저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 아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빠는 일을 하지 않으셔서 엄마 혼자 식구들을 돌보고 있는데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저는 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오픈도어를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려요.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후원: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시리아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그 이상의 것을 심는 학교

복도 안에는 어린이들 웃음으로 가득 차있다. 어린이들이 무리를 지어 예배를 드리러 간다. 가는 길에 학생들은 다른 학급의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 이 아이들은 모두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다. 이들 모두 오픈도어가 일부를 후원하고 있는 레바논의 한 학교에 다닌다.

예배당이 아이들로 가득 차기 전에 맨 앞에서 한 선생님이 교복을 입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친다. 그 노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50명이 넘는 아이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온 맘을 다해 영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노래 가사를 따라 율동하는 시리아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넘쳐났다.

11살인 할레(Haleh)는 엄마로부터 이 학교에 입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한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로 돌아갈 때 할레는 자기가 알레포(Aleppo)에서 왔으며 현재 5학년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아랍어와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난민으로써 본국에서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레

바논의 학교들 또한 이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수많은 아이들이 5년이 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레는 1년 전에 이 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오픈도어와 오픈도어의 협력기관의 후원으로 레바논의 동부에 세워졌으며 비정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270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부터 5학년까지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며, 많은 아이들이 무슬림이다. 비록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만 히잡을 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무슬림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어느 교회는 난민캠프 근처에 지역센터 2곳을 열었고, 이곳에 ‘천막학교’라고 하여 교실과 같은 공간을 마련하였다. 센터 중 한 곳은 16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다른 센터에는 1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한다. 시리아 아이들은 5-6세에 난민으로 와서 10-11세까지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 센터의 학교는 아이들이 5학년이 되면 전학을 하게 된다. 이 학교는 졸업장을 줄 수 없지만 전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졸업장을 받도록 유도한다.

시리아 출신 하딜(Hadil)은 이 학교의 교사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는 모든 것이 그들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녀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여러분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공격적이고 혼란스러웠고 또한 생각 없이 즉흥적이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에서 지내왔고, 어른들의 무분별한 말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캠프에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와서 3-4개월이 지난 뒤에 아이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아이들의 유익을 확신하는 하



딜(Hadil)은 교회가 ‘천막학교’를 열어주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학교는 난민캠프와 가깝고 교회가 위치한 곳에서도 멀지 않다. 하딜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고, 아이들이 오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아이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화해의 다리를 놓기 학생들의 치유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에티오피아 학교

에티오피아의 한 크리스천 공동체는 과거에 계속적인 공격과 사회적 차별을 속에서 극심한 핍박을 겪었다. 그러나 오픈도어에서 지원하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 학교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기적의 결과를 낳고 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 크리스천 아이들과 무슬림 아이들이 신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리더의 지시를 따라 아이들은 발목과 허벅지를 순서대로 찰싹 치고 난 후 박수를 세 번 치는 춤을 춘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의 설립자이자 페이스

(Feyssa) 목사는 예전의 삶에 대해 설명한다.

“핍박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우리가 이 땅을 밟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정말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하루에 최소 교회 성도 한 명이 공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무슬림들은 그들의 성경책을 빼앗아 불에 태우기도 했다. 그들은 심지어 교인들의 아이들을 난폭하게 괴롭히곤 했다. 끔찍했다. 변경, 핍박 예방, 타문화 이해에 대한 오픈도어의 훈련은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 크리스천들에게 힘이 되었





다. 그들은 신자들이 핍박을 경험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페이사 목사는 크리스천들과 지역 공동체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길 원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것을 오픈도어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교회 부지에 7명의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픈도어는 그의 요청에 동의하였고 아이들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나중에 오픈도어는 학교의 확장을 지원해주었고 다른 장소에 초등학교를 지어주었다. 그곳에 학교 건물 3동과 그네가 있는 운동장을 지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아이들이 연구실, 도서관, 컴퓨터 학습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학교는 한 때 적대적이었던 무슬림 공동체의 마음에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페이사 목사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마을에 사는 무슬림들이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800명 학생 중 절반이 무슬림입니다. 점점 더 많은 무슬림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등록하고 있고,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고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핍박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크리스천들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종종 본다.

“우리는 무슬림들과 동떨어져 있었고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통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지어 그들의 집에 초대받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Hustaz), 들어오세요.’ 이 소리는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12살 소년 시새(Sisay)는 얼마

“우리는 무슬림들과 동떨어져 있었고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통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지어 그들의 집에 초대받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Hustaz), 들어오세요.’ 이 소리는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서로의 필기 내용을 비교하며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예이다. 그는 자신의 셔츠 뒤에 펜으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적어놓았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학교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행복해요. 언젠가 저는 의사가 되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마을 형들처럼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싶어요.”

1학년 무슬림 남자 아이를 만났다. 그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데수 교장은 오픈도어가 지원해준 이래로 학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감사한다.

“오픈도어의 사역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분의 선하심을 베푸셨고 그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픈도어의 사역과 모든 사역자



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오픈도어와 연결되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저의 비전은 그저 공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페이사 목사는 확신을 갖고 말한다.

“이제 우리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우리 학교로 자녀를 데려옵니다. 이 지역의 다른 6개 교회들이 이 학교의 영향력을 깨닫고 그들도 학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 셔츠에 쓰인 기독교 메시지

※ 오픈도어 소식지에 나오는 인명은 안전을 이유로 인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후원: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국내 사역자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방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회계 및 프로젝트 담당 (전임)	선교 관련 연구원 (전임 또는 파트)
모집인원	- 0명	- 0명
주요업무	- 일반회계업무 - 선교 관련 프로젝트 관리 (예산 및 집행 관련 실무)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 선교 현장 관련 연구과제 및 관련 사무업무 수행
지원자격	- 회계 관련 전공자 혹은 경력자 - 영어 업무 가능자 (해외본부 기준에 따른 업무간 영어사용 필수)	-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및 관련 학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외국계 기업 등 영어사용 업무 환경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연구 경력 및 실적이 있는 자
사역조건	- 4대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 전임: 4대 보험 지원, 주 5일 근무, 급여 개별 협의- 파트: 근무시간 및 급여 협의
공통사항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공지사항 게시판))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모집기한 : 구인 시까지 · 문의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이메일 : info@opendoors.or.kr	

오픈도어 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지 역: 서울 및 인근지역

기 간: 5년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은 행: 신한은행

계 좌: 100-027-607588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1	2			5			6
			4				
	3						
					7		
	8						
9							
10							
				11			

● 가로열쇠

- '넓은 장소'란 뜻.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분쟁을 피해 그랄 골짜기에 뢰던 세 번째 우물 이름이다. (창26:12-22)
-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란 뜻. 베들레헴 사람으로 기근을 피해 남편, 두 아들과 모압으로 이주했으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으며 두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와 룿이다. (룿1:1-5)
- 예수님께서 벳새다 고을에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다. (마14:13-21, 막6:30-44, 눅9:10-17, 요 6:1-14)
- 2019년도 기독교박해지수 2위 국가. 이곳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임이 알려지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배척당하며, 살해당할 수 있다. 이슬람 탄압이 극심한 나라 중 하나다.
- 헬라어. '낮은 지대의 모퉁이'란 뜻에서 유래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에 마련된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의 피난처요, 예배처인 동시에 지하 모퉁이기도 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비밀병기. '300 0000'들은 매주 월요일 국제오픈도어의 최신 박해 뉴스와 기도제목을 놓고 힘써 기도하고 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 백성들 가운데 군사 300명을 선발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던 것에서 착안,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에 힘쓰는 오픈도어의 참 일꾼들이다.

● 세로열쇠

-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란 뜻.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길가에 섰던 군중들이 외친 함성.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21:8-9)
- 가나안 열두 정탐꾼 가운데 단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다. (민13:1-16)
-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0000이로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증언하였다. (요 1:29-34)
- 그리스어. <기독교 신학적 용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 <철학적 용어> '언어를 매체로 하여 표현되는 이성'이란 뜻을 갖고 있다. (초성 힌트 : ㄹㅇㅅ)
- <사전적 의미> 형제, 자매의 자식을 이르는 말. 룿은 아브라함의 00이다. (창12:4-5)

북			게				
한			바	디	매	오	
선	지	자		아			
교		수		스	리	랑	칸
학		정		포			
교			아	라	랏		미
	스	랍					그
	승		머	스	카	슬	론

■ 4월호 당첨자 ■

이*엘 (9582), 서*경 (4641), 조*영 (8798)님 축하 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마감 : 2019년 5월 10일)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0일(1박 2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10km, 21km,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68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120km

참가비: +30만원(체류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박해의 숨은 희생자 어린이·청소년 돕기 캠페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박해에 노출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 ▶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 ▶ 부모의 희생으로 인해 남겨진 자녀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예금주: 김성태(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픈도어선교회의
정기후원자가 되시면,
전 세계의 박해 지역의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려 ...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협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금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은행:	은행계좌: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혹은 <input type="checkbox"/> 25일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찍어서 010-7548-3171로 보내주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